

##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 새로운 접근과 이해\* \*\*

## :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오정미\*\*\* (인하대학교)

## 국문요약

이 글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한국어로 구술한 아시아 설화를 상호문화교육 자료로써 개발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28개국 134명의 이주민을 통해 수집한 1493편의 설화중에서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이주민 대상의 설화 조사가 가지는 상호문화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시아 설화의 대표 상징으로써 베트남 설화를 중점적으로 살핀 후, 상호문화교육을 위해 어떤 설화를 선정하고 교육할지 베트남과 함께 필리핀과 몽골 설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가 서사에 잘 형상화된 설화를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작품으로 선정하였고, 동시에 4개의 항목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베트남 및 필리핀과 몽골 설화를 통해 4개의 항목이 어떻게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의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상호문화교육, 아시아 설화, 이주민,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

## I. 서론

이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상호문화교육 텍스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합한 교육 자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다문화사회가 구축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각국의 문화를 녹여 통합시키고자 한 미국의 다문화교육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주요한 교육 방향이었다. 현재는 유럽에서 시작된 상호문화교육이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서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 특히, 독일에서 강화된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다양성에 주목하기보다 문화간의 관계, 상호성에 집중한다. 정영근에 의하면 다문화가 단순히 여러 문화들의 병존 내지는 공존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면, 상호문화는 그와 달리 문화들 사이의 연관성과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0367).

\*\* 이 논문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 29차 2019년도 추계 전국학술대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베트남 설화의 접근과 활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단독저자, 인하대학교 학술연구교수, gina2004@naver.com

현이라는 것이다(정영근, 2006: 32).

이 글에서 목표로 한 상호문화교육도 문화들 사이의 연관성, 즉 상호작용을 목표로 학습자가 모문화를 인식하는 가운데 타문화와 관계를 이해하는 방향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sup>1)</sup>, 교육 방안 차원에서 텍스트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연구<sup>2)</sup>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그리고 자료의 범 교육적 활용과 같은 실체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본 연구자가 3년 동안(2016.09-2019.08) 한국학 중앙연구사업으로 수집 및 조사한 다국적 설화중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할 교육 자료의 발굴과 개발 그리고 교육적 활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본 연구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국적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들려주고 싶은 각국의 설화를 조사한 바 있다. 이주민의 대부분은 전국의 다문화센터 혹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만난 결혼이주여성으로, 그들은 자국의 가치관과 세계관, 자연환경, 사회, 역사, 민간신앙 등 다양한 주제가 서사화된 자국의 설화를 한국어로 구술하였다. 발굴 및 수집한 다양한 주제의 아시아 설화는 현재 전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조사 현장의 동영상과 전사본, 음성파일 등이 DB 자료로써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설화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몽골과 필리핀 설화, 특히,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과 교육적 활용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베트남 설화는 아시아 설화가 가진 상호문화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데 중요한 지표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의 대부분이 아시아계, 특히, 베트남은 중국을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베트남 설화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트남 설화로 상호문화교육의 가능성을 타진 후 아시아 설화로 확대를 위하여 몽골과 필리핀 설화를 통해서도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상적으로 설화의 상호문화교육적 가치를 논하는 데에서 나아가 아시아 설

1)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이론을 소개하고 교육의 방향 그리고 필요성에 관해 살피는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초기의 연구 방향이었던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이론 소개에서 나아가 유럽의 상호문화교육의 사례를 살피는 연구로 변화했다. 그러나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사례 연구도 상호문화교육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하는 방향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이주민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상호문화 문화교육과 사례 분석(김은희, 2019), 독일 학교에서 상호문화교육의 실행원칙과 실천사례(정기섭, 2020), 상호문화교육의 개척자 뒤브라의 집단대화를 활용한 정주민과 이주민의 관계 개선 방안 모색(박재운, 2020) 등이 있다.

2) 상호문화교육 방안 차원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장현정·우신영, 2019),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김지혜, 2109), 동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교육 방안 연구:유학생 대상의 플립드 러닝 방식을 중심으로(고경민, 2020), 상호문화영화의 의의와 교육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강보라, 2020) 등이 있다.

3) 본 연구는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으로, 과제명은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 구축>이다. 참여 인원은 총 17명으로, 3명의 전임연구원을 중심으로 전국 대상의 이주민 설화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8개국의 134명의 이주민을 통해 설화를 포함한 1493편의 구술담화 자료가 확보되었다.

화의 구체적인 설화 선정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여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베트남 설화 조사와 수집의 상호문화교육적 의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전제될 점은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확보이다. 교육 자료의 개발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상호문화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 상호문화교육을 위해 제시되는 대표적인 교육 자료가 불분명하다. 물론, 교육 대상과 목표 등의 요인에 따라 교육 자료도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확보가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확보의 방향으로써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국적의 설화 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 까지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그들 자국의 구술자료, 특히, 설화를 중심으로 전국구의 이주민 구술자료를 수집 및 채록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중에서도 베트남 구술자료는 설화를 포함해 159편이 조사되었고, 속담, 민속, 생애담과 같은 비설화 자료를 제외하면 119편의 베트남 설화가 조사되었다. 설화 조사 과정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센터와 한국어교육 기관, 그리고 대학 등의 교육 기관을 통해 이주민을 소개받고, 이주민과의 사전 인터뷰 후 연구팀이 이주민을 직접 만나 구술조사를 하였다. 공식적인 기관 섭외 외에도 설화를 구술한 이주민이 다른 이주민을 조사팀에게 추천하여 만남이 성사되고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23명의 베트남 이주민을 만나서 설화를 조사할 수 있었고, 특히, 적극적으로 설화 구술을 하는 이주민의 경우는 2회에서 3회까지 설화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 베트남 이주민 조사현황

번호	이름	조사 횟수	조사편수	조사 지역	이주 형태
1	누구***두이엔 (여, 89생)	2회	11편	강원도	결혼
2	호** (남, 97생)	1회	4편	강원도	유학
3	원향***연 (여, 97생)	1회	1편	강원도	유학
4	누***퍼 (여, 90생)	1회	8편	충청도	결혼
5	엔***번 (여, 84생)	1회	3편	전라도	결혼
6	호**녀 (여, 86생)	1회	4편	전라도	결혼
7	찐티**쑤언 (여, 88생)	1회	3편	경기도	결혼
8	응웬**통 (남, 86생)	1회	4편	경기도	노동
9	응티**영 (여, 88생)	2회	17편	인천	유학
10	백** (여, 82생)	1회	5편	인천	유학
11	팜**엔 (여, 87생)	3회	11편	충청도	결혼
12	전**영 (여, 92생)	1회	3편	경기도	결혼

번호	이름	조사 횟수	조사편수	조사 지역	이주 형태
13	부**영 (여, 90생)	1회	5편	경상도	결혼
14	땅** (여, 83생)	1회	6편	충청도	결혼
15	편**트 (여, 85생)	1회	6편	경상도	결혼
16	이** (여, 91생)	1회	1편	경상도	결혼
17	지**탄웅 (여, 85생)	1회	8편	강원도	결혼
18	누**한 (여, 91생)	1회	2편	충청도	결혼
19	웬** (여, 87생)	1회	7편	충청도	결혼
20	편**프영 (여, 77생)	2회	14편	서울	기타
21	도** (여, 89생)	3회	21편	경기도	결혼
22	팜 ** (여, 93생)	1회	9편	서울	유학
23	부**하 (여, 93생)	1회	6편	서울	결혼

총 30회의 조사로 수집된 베트남 설화 119편은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텍스트로서, 교육 내용과 교육자료의 개발 그리고 교육 방안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상호문화교육 텍스트로서의 교육 내용의 의미는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를 통해 각국의 보편 문화와 함께 특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록한 119편의 베트남 설화 중 〈찌우까우〉와 〈땀 감〉, 〈영웅 땀잠〉 등과 같이 여러 이주민에게 중복되어 수집된 설화는 대부분이 광포설화이다. 광포설화란 각국을 대표하는 설화로, 지역에 구분이 없이 전국에 넓게 분포하여 전승되는 이야기로, 한국의 광포설화에는 설화 〈선녀와 나무꾼〉, 〈콩쥐팍쥐〉 등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베트남 설화 119편 중 약 30여 편이 여러 이주민에게 중복 구술이 되었고, 중복 구술된 설화는 베트남인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베트남의 광포설화였다.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의 광포설화를 통해 베트남인들이라면 대부분이 익숙한 베트남의 보편적인 대표 문화 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설화 〈영웅 땀잠〉을 통해 베트남인들이라면 공감하는 민족 중심의 가치 문화, 역사적으로 전란이 많았던 베트남 역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즉 민족 대부분이 구술하는 광포설화를 통해 그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보편적인 각국의 대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광포설화 외에도 약 80여 종의 다양한 베트남 설화가 조사되었는데, 베트남인들이 경험한 특유의 문화를 이해하는 텍스트로서 상호문화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총면적이 33만 편방 킬로미터나 되는 베트남은 남쪽과 북쪽 지역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지역에 따라 개인의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베트남의 지역 및 개인에 따른 다양한 문화가 80여 종의 개별 설화를 통해 학습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렇듯 교육 내용의 의미에서 볼 때, 80여 종의 설화는 정형화하여 획일화할 수 있는 상호문화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학습시킨다.

베트남 설화 조사와 수집이 가지는 교육 내용의 두 번째 의미는 교육 자료의 양적 및 질적 확보이다. 자료의 양적인 확대는 질적인 확대와 연결되고, 이주민을 통한 다양한 설화의 조사와 수집은 교육 내용적인 면에서 좋은 텍스트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한국에 소개된 베트남 설화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설화는 문헌 자료를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일

설화가 답습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베트남 설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헌을 통해 번역된 아시아 설화 전승의 특징이기도 하다. 반면, 이주민을 통한 설화 조사의 결과물에는 한국에 이미 알려진 설화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고향에 관한 지명 전설부터 최근에 전승되고 있는 현대 설화까지 두루 섭렵하여 조사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주민을 통해 구술된 설화에는 문헌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설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에는 단 한 편 조사된 설화일지라도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중요한 교육 내용이 발견되는 설화가 많았다. 다음은 I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참여자 A씨가 구술한 설화 <네모난 뱀>이다.

어. 옛날 어떤 집에서 남편과 아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저씨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니까 눈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아줌마만 하고, 아저씨는 맨날 그냥 쉬고만 있어요. 그래서. [조사자: 어느 나라나...(웃음)] 아줌마가 맨날 아저씨한테 일을 해라 그랬는데 맨날 핑계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아저씨가 눈에 갔는데 바로 왔어요.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물어봤어요.

“왜 이 시간에 들어오냐.” 고.

그래서 아저씨가

“아, 그게 아, 어, 눈에 갔는데 무서운 뱀을 봤다. 근데 크고 진짜, 어, 요만하게 길고, 요만하게 넓고 그랬. 그런 뱀을 만났다. 한 길이는 한, 팔 미터 정도.”

옛날에는 미터라는 단위, 미터라는 단위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이만한.

“그니까 팔 미터, 넓이도 팔 미터 정도 됐다.”

그래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그게 아니고,

“길이는 팔 미터, 그리고 넓이는 사 미터 정도 된 뱀이었다. 너무 큰 두께가. 그니까 그래서 너무 큰 뱀이었다.”

그래서 와이프, 아줌마가,

“무슨 뱀이 팔 미터나 길어?”

그래서

“팔 미터 정도는 아니지만 한 육 미터 정도는 됐을 거다.”

그래서 아, 아줌마가,

“아이, 무슨 뱀이 육 미터나 가냐?”

그래서 아저씨가 계속 줄였어요. 그 길이를. 그래서,

“아니야, 육 미터 정도는 안 되지만, 사 미터 정도는 됐을 거다. 확실해.”

그래서 아줌마가,

“아, 뱀이 두께도 사 미터, 길이도 사 미터. 그러면 네모난 뱀이야?”

그래서 아저씨가 그 때 황당해서 그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들켰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대요. (웃음) -(생략)-

이번 조사에서 단 한 편 조사되었고, 현재까지 한국에 소개된 적 없는 베트남 설화 <네모난 뱀>이다. 농사짓기 싫은 게으른 남편이 큰 뱀을 만났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여, 뱀의 크기를 줄이고 줄여 결국 뱀의 모양이 네모난 뱀이 되었다는 설화이다.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짧은 소화인데, 상호문화교육적인 면에서 베트남의 문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좋은 설화이다. 우선, 논, 뱀과 같은 소재를 통해 베트남의 자연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부부의 대화를 통해 농경사회와 모계사회를 알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모계 사회가 발달한 국가로, 남편의 게으름과 아내의 잔소리라

는 서사를 통해 베트남 삶의 모습, 특히, 생활력 강한 베트남의 딸들과 어머니들이 가족 내의 중심인 모계 사회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거짓말이 결국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대한 반성은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보편의 가치문화로, 설화 〈네모난 뱀〉에서 가치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단 한 편 조사된 설화에서도 생활문화, 자연문화, 가치문화를 학습할 수 있었고, 이주민의 설화 조사를 통한 양적 및 질적 자료의 확대는 결국 교육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의 설화 조사 및 수집은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주민을 통해 아시아 설화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작업은 교육 자료를 어떻게 발굴하고 확보할 것인가와 같은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한국설화 나아가 한국문학을 통해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외국 문학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육 자료를 다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다른 언어의 텍스트라는 난관 때문에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통해 다국적의 설화를 수집하고 확보한 본 연구 사례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다국적의 교육 자료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김영순·최유성(2019)이 정의한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이 구술한 자국의 설화는 상호문화교육적 관점에서 특별한 교육 자료이다. 문화번역이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번역과 달리 언어적 호환성이나 등치성이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개념(김영순, 최유성, 2019: 5)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문화번역이 이주민이 구술한 자국의 설화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헌으로 번역된 아시아 설화가 언어적 호환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과 자국, 양국의 문화를 경험한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는 문화번역이 이루어진 교육 자료인 것이다. 실제로 이주민이 들려주는 자국의 설화는 개인의 기억과 지식 속에서 선택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를 의식하며 선택된 설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번역이 이루어진 자료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점에서 이주민의 설화 조사와 발굴은 상호문화교육에서 매우 특별하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 교육을 실천하는 구체적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주민 설화와 조사와 수집은 중요하다.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이 구술하는 설화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과정은 상호문화교육의 실천적 교육 방안이다. 베트남에서 이주한 이주민이 한국어로 들려주는 베트남의 설화에는 한국 및 다국적인들과의 소통이 전제되고, 그 속에는 상호문화성이 담겨있다. 상호문화성이란 이주민이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정주민이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인데, 설화 조사 과정에서 상호문화성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이주민이 설화를 구술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은 설화 조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와 3차례의 조사를 통해 만난 참여자 B씨는 두 아들의 엄마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며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문화적응을 한 결혼이주여성이다. 총 3차례의 설화 조사를 진행하였고 참여자 B씨는 1차 조사에서 총 6편, 2차 조사에서 8편, 마지막 3차 조사에서 7편의 설화를 구술하였다.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 방안으로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서울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에서 처음으로 만난 참여자 B씨는 베트남 설화와 관련한 동화책 4-5권을 조사장소로 직접 가져왔다. 참여자 B씨는 설화 조사를 위해 그 책들을 사전에 살펴보았다고 밝힌 후 책을 확인하며 베트남 설화를 구술하였다. 2차 조사는 참여자 B씨의 자택에서 이루어졌고 그녀는 총 8편의 설화를 구술하였다. 참여자 B씨는 기존에 알고 있는 이야기를 1차 조사 때 대부분 구술해서, 인터넷과 베트남에 사는 지인들을 통해 베트남의 다양한 설화를 찾아보았다고 밝혔다. B씨는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노트에 직접 다양한 베트남 설화를 적어오는 등, 2차 조사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구술하는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 3차 조사도 참여자 B씨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2차 조사 때 보다 구술한 설화 편수는 줄었지만, 각 편이 더 긴 시간을 소요하는 서사성이 완결된 설화를 구술하는 특징을 보였다. 3차 조사에는 1·2차 조사 때와 달리 현재 베트남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술하는 특징을 보였다. 참여자 B씨는 자국을 떠나 온 세월만큼 현재의 자국 문화와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설화 조사가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여 자국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리를 좁혀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마무리하며 참여자 B씨는 설화 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잊고 있던 베트남 이야기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새로운 베트남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았다.”

참여자 B씨는 조사를 위해 단지 구술하는 차원을 넘어 베트남이라는 자국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조사팀에게 확인시켜줬다. 상호문화교육이 자신의 모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1차에서 3차 조사까지 참여자 B씨가 보여준 모습은 상호문화교육의 교육과정, 즉,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그 과정을 교육 방안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이주민의 설화 조사 단계와 상호문화교육

1단계	이미 알고 있던 설화 구술 (과거)
2단계	인터넷과 지인을 통해 설화 구술 (과거+현재)
3단계	자국의 현재의 문화를 반영한 설화 구술 (현재)

베트남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기 위해 1단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베트남 설화를 갈무리하는 것이고, 2단계에서는 잊었던 자국의 설화를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보고 확인하는 모습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주민이 자국을 떠나 알 수 없었던 현재의 자국 이야기, 즉 현재의 베트남 설화까지 향유하면서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설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자신의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 예컨대 ‘베트남 사람들은 바다와 산의 후예들입니다.’ 혹은 ‘베트남 사람들은 싸움을 즐

기지 않고 평화를 좋아합니다.’ ‘중국은 대국이 맞지요.’와 같은 설화 구술 후의 첨언을 하며 자국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며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보는 것은 비약적 해석일 수 있다. 그러나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은 이주민이 모문화를 건강하게 재인식하는 과정이었고, 이것은 다시 정체성 회복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민 설화 조사는 이주민뿐 아니라 정주민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적 방안이기도 하다. 설화 조사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정주민을 비롯한 설화를 경청하는 다국적의 학습자는 상호문화교육의 효과를 경험한다. 이주민이 설화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모문화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경험하였다면 정주민도 설화를 통해 이주민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호문화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의 다름과 함께 같음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간문화성을 경험하는데, 정주민이 경험한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의 설화 조사에 참여한 본 연구팀도 낯설고 새로운 이야기일수록 더 큰 호기심과 관심을 느꼈고, 이것은 다시 그 설화를 창조한 국가에 대한 관심의 함양으로 연결이 되었다. 결국, 낯설고 다름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설화는 다시 그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의 함양으로 연결되면서 최종적으로 다문화 교육의 목표인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실현시켰다(오정미, 2017: 200).

그들의 문화와 외모, 언어와 인식 상에 한국인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심층적으로는 그들이 살면서 인식하고 있는 삶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 등이 한국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인과 다를 것 없는 삶의 목표와 문제, 갈등, 감정 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당연히 되고 있는 인식적 차별의 시선들을 거두어 낼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3, 서면인터뷰(김영순·오영섭, 2019:57).

이주민 설화 조사를 한 연구자들은 비교적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열린 사고를 가진 정주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조차도 설화 조사 전에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이주민의 자국에 대해 평가하고 있었다. 가난과 후진국으로 각국을 이미지화하고 있었다면, 이주민의 설화를 경청하면서 각국의 지혜와 가치관에 감탄하며 각국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경험한 것이다. 설화 경청 전에 경제적인 논리로 각국에 대하여 평가했다면, 설화는 비경제적인 논리로, 즉 설화에 담긴 다양한 주제와 교훈을 통해 각 민족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한국 국적의 연구자들은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간문화성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상호문화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고 정주민이 이주민의 구술을 경청하는 조사 과정은 상호문화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상호문화교육의 방안으로서 미디어활용, 동화책 활용, 한국설화 등의 다양한 교육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주민 자국, 특히,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경우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들려주고 정주민이 경청하는 과정은 상호문화교육에서 간문화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방안이라 하겠다.



이제 베트남 설화뿐 아니라 아시아 설화가 가진 한국 다문화사회에서의 상호문화교육적 내용과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상호문화교육 텍스트로서의 아시아 설화 선정과 교육 내용

아시아 설화는 그 자체로도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충분한 교육적 가치가 있지만, 정해진 환경과 시간 속에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설화 선정 방안과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설화가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유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체계적인 항목이 필요한 것이다. 방대한 설화 속에서 어떠한 설화를 선정할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에 집중하여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할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기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써 총 4가지의 항목,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를 구축하였다. 즉 선정 기준이자 동시에 설화를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4개의 항목을 구축한 것이다.

선정 기준이자 교육 내용이 되는 4개의 항목은 설화의 서사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설화에서 문화가 스토리로서 서사화된 지점, 동시에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의미가 발현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를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설화 선정 기준이자 동시에 상호문화교육 내용의 항목으로 구축한 것이다.

▷가치문화: 각 민족의 세계관, 가치관 등을 의미하며 효행담, 지혜담 등이 이에 속한다.

▷자연문화: 각국의 생태환경 즉 동식물 관련 설화로 동물, 산, 바다 등과 관련한 설화로, 지명 전설 등이 이에 속한다.

▷생활문화: 각국의 풍습과 생활을 의미하며, 명절, 민속(악기, 노래 등)과 관련한 설화 등이 이에 속한다.

▷역사문화: 민족을 대표하는 영웅과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며, 영웅설화와 민족 신화 등이 이에 속한다.

먼저, 가치문화란 각 민족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의미한다. 예컨대, 효행, 지혜, 인과응보 등이 이에 속하는데, 국적을 초월한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문화를 설화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각국만의 특수한 가치문화도 설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각국 문화의 같음에 주목할 수 있는 세계 보편의 가치문화는 상호문화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각국의 다름과 함께 낮은 문화 속에서 같음을 발견하여 세계인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상호문화교육의 실천이고, 가치문화는 설화에서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자 설화 선정 기준이 된다.

다음으로 설화 속 자연 화소를 통해 학습하는 자연문화는 설화 선정의 중요 기준이자 동시에 교육 내용이다. 산, 강, 호수, 바다와 같은 자연 환경과 함께 각국만의 다양한 동물, 식물 등이 등장하는 설화에서 각국의 자연문화를 학습할 수 있고, 실제로 이주민들이 구술한 설화를 통해 가보지 못한 각국의 다양한 자연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베트남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물소와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은 자연문화를 상징하는 화소로 베트남의 자연문화에 대한 학습으로 발전한다. 실제로 아시아 설화에서 조사된 다양한 동물 화소, 예컨대 일본의 게와 거북이, 몽골의 말과 늑대, 캄보디아의 뱀과 개, 필리핀의 원숭이와 거북이, 한국의 호랑이와 토끼 등은 각국을 상징하는 대표 동물 화소로, 각국의 자연환경, 즉 자연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다양한 자연환경과 관련한 설화 속 화소를 통해 각국의 자연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연문화에 대한 학습은 자연환경에 대한 단편적인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문화와 가치문화 그리고 역사문화로 확대되어 심층적인 상호문화교육으로 발전한다.

각국의 생활과 관련한 풍습, 명절, 민속 등을 의미하는 생활문화는, 특히 생활 양식이나 풍습 등에 관한 전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날에 찌우 나뭇잎과 까우 열매 그리고 석회를 발라 씹는 문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광포설화인 <찌우까우>를 통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이외에도 쌀농사를 주 생업으로 살아갔던 베트남은 실제로 설화에서도 쌀농사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으며, 설화를 통해 쌀농사와 같은 농경문화를 생활문화 차원에서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설화를 통해 학습하는 생활문화는 각국의 특수한 문화를 내용으로 하며, 정보 차원의 전달이 아닌 서사를 통한 전달이라는 점에서 각국의 문화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가 있다. 설화는 상상력을 발휘한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실존했던 인물과 사건 등을 바탕으로 향유되고 전승되기도 한다. 예컨대, 베트남의 광포 설화인 <영웅 땡잠>의 주인공은 허구의 창조된 인물이지만 동시에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구한 실존했던 영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베트남 사람들은 땡잠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믿으며 설화를 전승하고 설화 속 전쟁도 역사를 토대로 한다고 믿는다. 즉 <영웅 땡잠>처럼 영웅전설과 석탑, 사찰 등의 역사 관련 화소가 있는 설화는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좋은 텍스트가 되기에 역사문화는 설화 선정의 기준이자 동시에 교육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통해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접근하는 4개의 문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의 광포 설화인 <백 개의 알을 낳은 시조신 락룽편과 어우꺼>는 베트남인들이 사랑하는 신화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4명의 베트남 국적의 이주민이 구술했을 만큼 베트남을 대표하는 설화이고, 그만큼 설화의 서사를 통해 베트남의 가치·생활·자연·역사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락룡편과 로우편이 결혼하여 백 명의 아들을 낳았다. 한 개의 알이 부화하니 백 명의 아들이 알에서 나왔다고 하며, 이 알에서 나온 백 명의 아들이 백월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락룡편은 아들 오십 명을 데리고 바닷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로우편은 나머지 오십 명의 아들과 산으로 가서 살았다 한다. 이때부터 산에 사는 사람들과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나누었는데 베트남에서 모두 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 자손들이 빈랑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백 개의 알을 낳은 시조신 락룡편과 어우꺼〉

설화 〈백 개의 알을 낳은 시조신 락룡편과 어우꺼〉는 산과 바다의 신적 존재들이 결합하여 낳은 자손들이 베트남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비엠티족이라는 베트남의 민족 기원 신화이다. 민족 기원 신화인만큼 설화를 통해 베트남인들이 생각하는 고유의 민족성을 이해할 수 있다.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을 영험한 신적 존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민족에 대한 생각은 가치문화이다. 그리고 신적 존재의 후손이라는 베트남의 가치문화는 한국에도 똑같이 존재한다. 한국의 〈단군신화〉에서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단군의 후손이라 생각하며, 영험한 신적 존재의 후손으로서 고유의 민족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설화 〈백 개의 알을 낳은 시조신 락룡편과 어우꺼〉는 베트남인들이 가진 혈통에 대한 가치문화를 전달하고 한국의 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간문화적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인들의 시조인 100개의 알은 한민족을 강조하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이 다종족과 다문화로 구성된 국가라는 생활문화의 내용을 전달한다. 실제로 베트남은 54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족에 따라 다양한 풍습과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즉 설화를 통해 다종족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설화를 통해 학습할 자연문화는 베트남의 지형이다. 락룡편이 아들 50명을 데리고 바다로 갔고, 로우편이 나머지 50명의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다는 설화의 서사에서 자연문화 차원의 베트남 지형을 학습할 수 있다. 베트남은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산악이 전 영토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지리 환경을 가지고 있다. 삼면이 바다이며 산이 많은 한국의 지형과 매우 흡사하여 비교를 통해 자연문화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손들이 빈랑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서사를 통해 베트남의 역사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빈랑은 베트남 최초의 고대국가로, 상상이 아닌 역사에 존재하는 국가이다. 이처럼 설화 한편 속에서 가치·생활·자연·역사문화를 총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설화로 흥미롭게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설화 선정의 기준이자 교육 내용인 4개의 항목은 베트남 설화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다른 국적의 설화에도 적용하여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필리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20대 초반에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지 25년 차의 결혼이주여성인 연구참여자 C씨가 들려준 필리핀의 설화 〈마까히야의 유래담〉이다. 설화 〈마까히야의 유래담〉은 마까히야라는 필리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에 관한 유래담이다. 마까히야는 일종의 미모사로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식물로, 마치 수줍어서 부끄러움을 타는 모습과도 같다고 하여 함수초라고도 한다.

필리핀 마사거나 마을의 한 부부가 딸을 낳고 싶어 기도를 하였는데, 소원이 이루어져 여자 아이를 낳았고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예쁜 마리아는 썩스러움이 많아 집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늘 집에 있었다. 어느 날, 스페인이 필리핀을 쳐들어와서 살육과 약탈을 일삼자 마리아의 부모는 마리아를 큰 숲에 숨겨놓았다. 스페인이 물러간 후 마리아 부모가 딸을 찾으러 갔는데, 마리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식물이 나타났는데, 만지면 잎사귀가 닫히고, 안 만지면 잎사귀가 열렸다. 이에 이 식물이 마리아라고 생각한 부모는 이후로 식물을 마까히야라고 불렀다. 마까히야의 '마'는 '마리아'를 지칭하고, '까히야'는 '썩스러운'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마까히야는 '터치 미 낫', '날 만지지 마'라고 하는 뜻이 있다.

〈마까히야 유래담〉

〈마까히야 유래담〉은 본래 식물의 이름에 관한 전설이지만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서사에 집중하면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필리핀의 설화이다. 스페인이 필리핀에 쳐들어왔을 때, 마리아의 부모는 딸의 안전을 위해 마리아를 큰 숲에 숨겼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부모는 마리아를 찾으러 숲으로 다시 갔으나 어디에서도 딸을 찾을 수 없었다. 마리아 대신 그곳에는 만지면 잎사귀가 닫히는 식물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고 부모는 부끄러움 많았던 마리아를 떠올리며 그 식물의 이름을 '날 만지지 말라'는 뜻의 마까히야라 했다. 그 후로 필리핀에서는 그 식물의 이름을 마까히야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서사의 〈마까히야 유래담〉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은 자연문화와 역사문화이다. 열대 우림이 많은 필리핀의 자연 생태문화와 함께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마까히야의 유래담〉을 다국적의 대학생들에게 소개한 후, 소개하기 전과 후의 필리핀 국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바 있다. 대학생들은 필리핀의 자연문화 특히 역사문화에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고, 나아가 필리핀과 스페인의 관계를 통해 자국의 전쟁 역사를 떠올리기도 했다. 나아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유학생은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대와 연결하여 비판적 고찰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상호문화교육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설화 〈마까히야의 유래담〉을 통해 이미 서로의 문화를 비교하며 상호문화교육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몽골의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는 총 11명의 몽골화자 중 5명에게서 조사가 될 만큼 몽골을 대표하는 광포설화이다. 슬픈 사랑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마두금이라는 몽골 전통 악기가 만들어지게 된 유래를 서사화한 설화이다.

날 수 있는 말을 가진 노래 잘하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말을 타고 매일 밤 공주를 만나러 갔다. 나쁜 왕이 공주를 뺏고 싶어, 남자를 군대에 보낸 후 남자의 말을 죽였다. 결국 공주는 나쁜 왕과 결혼하였다. 슬픔에 잠긴 남자가 죽은 말의 말갈기와 꼬리털을 뽑아 줄로 만들고, 악기의 머리 부분은 말 모양으로 만들어 마두금을 만들었다. 남자가 마두금을 연주하며 노래하였는데, 그 음악은 매우 구슬프다. 그 악기가 몽골의 전통 악기 마두금이다.

〈'마두금' 악기 유래〉

평범한 남자가 공주와 사랑을 나눴지만, 그 사랑을 질투한 왕으로 인해 남자는 아끼던 말까지 잃는다. 결국 남자가 죽은 말의 털로 말 모양의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만들어 노래하며 살았다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이다. 〈'마두금' 악기 유래〉는 대부분의 몽골 사

람들이 이야기를 전승할 만큼 몽골의 광포 설화이다. 또한 설화 속에 등장하는 마두금은 실제로 많은 몽골인들이 직접 연주하는 대표 전통 악기로 연주를 통해 몽골인들은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한다.

몽골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로 접근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은 먼저 몽골의 생활문화이다. ‘마두금’이라는 전통 악기와 그 악기를 연주하는 몽골인들의 삶은 상호문화교육 차원에서 생활문화에 속한다. 마두금은 몽골인들 고유의 악기이면서 유목민족으로 살아왔던 몽골인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는 삶의 방식의 한 면이기 때문이다. 흔히 몽골하면 떠오르는 것이 몽골의 전통 주거 형태인 게르, 생활 방식인 사냥으로, 실제로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몽골의 삶은 무척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는 마두금과 함께 하는 몽골인들의 안분지족의 삶, 즉 생활문화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상호문화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생활문화와 함께 몽골의 자연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설화 속 주인공 남자가 자신이 기르던 말을 애도하며 만든 말 머리 모양의 ‘마두금’은 몽골에서 ‘말’이라는 동물의 위치를 보여주고, 이러한 말의 위치는 몽골의 자연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비교하자면, 말을 주요 화소로 한 설화가 한국에는 흔치 않고, 〈‘마두금’ 악기 유래〉처럼 인간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동물은 한국에서 말이 아닌 집에서 키우던 개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대초원에서 이동하며 살아가야 했기에 말은 가족과도 같은 가까운 존재이고 설화는 이러한 말과 몽골인들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말이라는 동물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통해 대초원, 평야와 같은 몽골의 자연문화를 학습하게 하고, 나아가 유목민족과 같은 생활문화로까지 연결하여 입체적인 상호문화교육을 실현하도록 만든다.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를 통해 학습할 마지막 상호문화교육은 가치문화이다. 남녀의 사랑까지 빼앗는 지배층의 폭력, 그리고 폭력에 대한 민중의 슬픔과 저항은 세계 보편의 가치문화이고, 설화를 통해 학습할 항목이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말을 잃은 남자가 만든 마두금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몽골의 전 지역에서 연주되는 것은 남자의 슬픔을 공감하는 민중들의 마음이다. 구슬픈 마두금 연주를 들으며 몽골인들은 남자를 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의 수많은 지배층을 향해 마두금 연주를 통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는 신분체제의 아픔, 지배층의 폭력에 대한 저항과 같은 세계 보편의 가치문화를 전달한다. 특히, 다름이 아닌 같음의 관점에서 상호문화교육적으로 가치문화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킨다.

이처럼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라는 4개의 문화 항목은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인식하고,異文化를 비교하여 間文化성을 익히게 하기 위한 설화의 선정 기준이자 동시에 주요 내용이다. 물론, 더욱 효용성이 있는 선정 기준과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자료가 지속적으로 연구 되겠으나, 이 연구에서 모색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해는 앞으로의 실제적인 상호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 IV. 결론

이 글은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텍스트 발굴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아시아 설화에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대상의 아시아 설화의 수집이 가지는 텍스트로서의 자료 개발 의미 그리고 교육 방안 나아가 작품 선정의 기준과 함께 교육 내용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래서 2장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아시아 설화 중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설화의 조사와 수집이 가지는 상호문화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 내용의 관점에서 첫 번째 의미는 아시아 설화를 통해 각국의 보편 및 특수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로 수집된 베트남 설화 119편 중 30여 편은 여러 이주민에게 중복 구술된 베트남의 광포설화이다. 베트남의 광포설화를 통해 대부분의 베트남인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대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각 편이 조사된 80여 종의 다양한 베트남 설화를 통해 베트남의 지역 및 개인의 다양한 특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설화는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각국의 보편 및 특수한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하게 만든다. 두 번째, 교육 자료 개발의 측면에서 베트남의 설화 조사 및 수집은 구체적으로 교육 자료를 어떻게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주민을 통해 베트남 설화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과정은 상호문화교육을 위해 교육 자료를 어떻게 발굴하고 확보할 것인가와 같은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민이 구술한 자국의 설화는 문화번역이 이루어진 교육 자료라는 점에서 특별하기에 기존의 문헌으로 번역된 아시아 설화와는 다르다. 따라서 양국의 문화를 경험한 이주민이 직접 구술하는 아시아 설화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은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자료 개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 교육 방안의 측면에서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고 정주민이 경청하는 과정은 서로가 간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상호문화교육의 과정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안이다.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고 정주민 혹은 다국적의 학습자가 설화를 경청하는 과정은 현재의 교육 방안의 한계를 극복해 줄 대안이 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밝힌 아시아 설화가 가진 상호문화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방대한 설화 중에 어떤 설화를 선정하고 교육 내용으로써 전달할지를 살펴보았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설화 선정의 기준이자 동시에 교육 내용이 될 4가지의 항목,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를 구축하였다. 4가지의 항목은 문화가 스토리로서 서사화된 지점, 동시에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의미가 발현될 수 있는 지점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베트남과 함께 필리핀과 몽골의 설화에 4가지 항목을 적용하여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하였다. 각 설화의 서사 속에서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의 교육적 접근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추상적인 담론 대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호문화교육의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이 구술하는 아시아 설화는 교육 자료의 개발과 문화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 그리고 소통을 전제로 한 교육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

론,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라는 4가지의 항목은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남아있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첫 단초로서 본 연구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민의 설화를 상호문화교육용 자료로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설계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설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학 장르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문헌

- 강보라(2020). 상호문화영화의 의의와 교육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56, 231-234.
- 고경민(2020). 동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교육 방안 연구 -유학생 대상의 플립드 러닝 방식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39, 39-62.
- 김영순·오영섭(2019).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8, 47-74.
- 김영순·최유성(2019). 문화번역 개념을 통한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 탐색. 언어와 문화, 15(1), 1-24.
- 김은희(2019). 독일 이주민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상호문화 문화교육과 사례 분석. 독어교육, 74, 301-328.
- 김정은(2018).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8, 201-238.
- 김지혜(2019).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48-359.
- 김혜진(2015). 상호 문화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의 ‘흥’ 이해-고전 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2(1), 79-111.
- 박재윤(2020). 상호문화교육의 개척자 뒤브아의 집단대화를 활용한 정주민과 이주민의 관계 개선 방안 모색. 다문화사회연구, 13-2, 209-248.
- 박현숙(2018). 이주민 구술 설화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주민 대상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49, 179-229.
- 신동훈(2017).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다문화 문식성의 질적 심화와 확장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180, 281-323.
- 양민정(2018).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 소통과 이해 -한국-중국-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0, 163-199.
- 오정미(2017).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187-211.
- 윤영(2014). 문학을 통한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 방안-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0, 208-244.
- 이성희(2015). 한국문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이정.
- 장한업 역(2010).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원저: *L'éducation inter culturelle. M. Abdallah-Preteuille*(1999).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한울아카데미.
- 장한업(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교육과학사.
- 장한업(2017).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지침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7, 199-222.
- 장현정·우신영(2019).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5-5, 759-788.
- 정기섭(2020). 독일 학교에서 상호문화교육의 실행원칙과 실천사례. 문화교류연구, 9-1, 129-152.



정영근(2006). 상호문화교육의 일반교육학적 고찰. 교육철학, 37, 29-42.

하은하(2017). 한국어교육을 위한 동아시아 설화 비교 연구: 한국, 베트남, 태국의 <나무꾼과 선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31, 73-116.

황혜진(2019). 베트남 이주민 구술설화 자료의 현황과 성격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42, 155-197.

## Abstract

# New Approach and Understanding of Asian Folktale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 Focusing on Vietnamese folktales

Oh, Jungmi(INHA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a way to develop and use Asian folktales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by immigrants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s resource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For this, the meaning of intercultural education from a survey on 1493 folktales provided by 134 immigrants from 28 countries was analyzed, focusing on Vietnamese folktales. After the analysis of the Vietnamese folktales including the Philippines and the Mongolia, this study examined what folktales should be chosen and taught for effective intercultural education. As a result, those with value culture, nature culture, living culture, and history culture were selecte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proposed an educational plan on how the four categories c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 education using folktales.

[Keywords] Intercultural Education, Asian Folktale, Immigrant, Value Culture, Nature Culture, Living Culture, History Culture